

한국어 감탄법의 실현 양상과 표현적 의미 연구

-감정 표현 구문을 중심으로-

명정희(서강대학교)

목차

1. 서론
2. 감탄법의 의미·화용론적 조건
 - 2.1. 놀라움과 정도성 평가
 - 2.2. 감탄의 적정성 조건
3. 감정 표현 구문의 의미 분석
 - 3.1. 감탄 평서문
 - 3.2. 감탄 의문문
4. 결론

1. 서론

한국어에서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아래 (1)처럼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2)처럼 감탄형 종결어미 외의 종결어미가 형성하는 다양한 구문을 통해서도 화자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 (1) 가. 아이, 추워라!
나. 정말 신기하기도 해라! (눈물의 여왕 8화 대사 중)
- (2) 가.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나. 값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
다. 왜 이렇게 맛있냐?

(1가), (1나)는 감탄형 종결어미 ‘-어라’에 의해 감탄문을 형성하는데, 감탄문은 한국어의 문장 유형 중 화자의 감정 및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문장 유형에 해당한다.¹⁾ 문장 유형은 일정한 문법적 형식(grammatical form)이 특정 의사소통 기능(conversational use), 즉 화행과 관습적으로 대응되는 것을 말한다(Sadock and Zwicky 1985). 이러한 관점에서 (1가), (1나)에 쓰인 ‘-어라’는 관습적으로 감탄(exclamatives) 화행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므로 화행(speech act) 측면에서 감탄의 직접 화행을 드러낸다.

한편 (2가)~(2다)는 형식만 보면 종결어미가 ‘-다’, ‘-냐’이므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1) 감탄문을 한국어의 독립적인 문장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감탄문을 독립적인 문장 유형으로 다루는 논의(고영근 1976, 노대규 1983, 윤석민 2000, 문보경 2013 등)도 있지만 감탄문을 평서문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는 논의도 있다(남기심 1973, 서정수 1990 등). 한편 학교문법(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감탄문’을 평서문, 의문문 등 기타 문장 유형과 함께 독립된 문형으로 보고 문장부호의 사용을 학습자의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2국04-03] 성취 기준 해설 참고). 이 글은 감탄을 표시하는 종결어미가 문장 유형 내 체계를 이루며 존재하고 이것이 관습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 화행과 대응을 이룬다고 보고 감탄문을 평서문과 구별한다. 감탄문을 독립적인 문장 유형으로 보는 자세한 입장 및 감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노대규(1983), 윤석민(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가)처럼 ‘얼마나’와 ‘-은지’를 포함한 평서문도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며 (2나), (2다)도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 감정 및 판단을 드러낸다. 따라서 (2)의 예문들도 화자의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발화된 경우, 아래 (3)처럼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 화행의 예로 분류된다.²⁾

(3) 가.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 (2가))

≡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놀랐다!

나. 값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 (= (2나))

≡ 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다!

다. 왜 이렇게 맛있냐? (= (2다))

≡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이처럼 (1), (2)의 예에서 모두 감탄이 해석된다면, 어떤 의미·화용적 특징을 지녔을 때 감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인가? 또한 (2가)~(2다)에서 해석되는 감탄 의미가 종결어미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론적, 화용론적 요인에 의해 감탄 의미가 도출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감탄법이 성립하기 위한 의미·화용론적 조건을 제시하고, 감탄 평서문이나 감탄 의문문과 같은 감정 표현 구문에서 감탄의 표현적 의미가 도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종결어미 ‘-어라’가 형성하는 감탄문을 중심으로 감탄의 의미 특징을 제시하고 감탄법이 성립하기 위한 화용론적 조건인 적정성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감탄 평서문과 감탄 의문문에서 해석되는 표현적 의미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2장에서 살핀 감탄문의 의미와 3장에서 다루는 감정 표현 구문 의미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2. 감탄법의 의미·화용론적 조건

2.1. 놀라움과 정도성 평가

감탄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및 판단’은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여기서는 한국어 감탄 종결어미 ‘-어라’를 중심으로 감탄(exclamatives)의 의미 특징을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감탄(exclamatives)은 화자가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서 놀라움(surprise)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논의되어 왔다(윤석민 2000: 129, 조민하 2019: 78, Michaelis 2001: 1039). 그런데 이때 ‘놀라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언어학 및 국어학 논의에서 ‘놀라움’의 의미는 주로 어떤 상황이 화자의 기대와 다르거나(unexpectedness),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는 의외성(mirativity)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이다(박진호 2011, DeLancey 2001: 38, Aikhenvald 2004, Merin & Nikolaeva 2008, Rett 2011).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많이 언급된 ‘-구나’의 예를 아래 (4)에서 살펴보자.

2) 기존 논의에서도 (2가)는 감탄 보문을 가진 문장으로 (2나), (2다)는 의사 감탄문(quasi-exclamatory sentence)로 분류한 바 있다(노대규 1981: 3-4). 이 글에서는 편의상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2가)는 감탄 평서문 (2나), (2다)는 감탄 의문문으로 부르기로 한다.

(4) 가. A: 철수는 편식이 심해서 야채는 입에도 안 대더라.

B: 그렇게 음식을 가리니까 살도 안 찌고 키도 안 크는구나. (박재연 2014: 225)

나.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철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철수는 벌써 집에 갔구나!

(4가B)에서 화자는 ‘철수가 살도 안 찌고 키도 안 크는 이유’가 ‘음식을 가리는 것’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4나)의 화자도 ‘철수가 벌써 집에 갔다’는 사실을 발화 현장에서 새롭게 인지하였다. 이처럼 ‘-구나’는 화자가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새로 알게 되거나 새롭게 인지한 것을 나타낸다.³⁾

그렇다면 ‘-어라’가 결합한 감탄문은 어떠한가? ‘-어라’는 화자의 주의나 관심을 끌 만한 상황이 발견되어, 상황을 새롭게 인지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구나’와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어라’는 ‘-구나’와 달리 정도성 평가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전자의 의미 특성을 현저성(顯著性, *salience*)이라고 하고 후자의 의미 특성을 정도성(程度性, *gradability*) 및 평가성(評價性, *evaluativity*)이라고 해보자.

‘-어라’가 가진 현저성의 의미는 아래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화자가 상황을 새롭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특별히 관심을 끄는 대상이 없어 주목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라’를 쓰는 것이 어색하다.

(5) 가. (맥락: 영수는 집에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영수의 아빠는 영수에게 새 인형을 사주었다. 하지만 아빠가 사준 인형은 영수가 가지고 있는 인형과 같은 것이었다. 영수는 선물받은 인형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형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영수: #귀여워라!

나. (맥락: 영화와 수지는 룸메이트다. 영화는 보통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반찬들과 밥을 먹기로 했다. 수지는 식사에서 특별히 맛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수지: #맛있어라!

(5가), (5나)의 상황에서 화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나 새롭게 인식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수나 수지의 발화인 ‘귀여워라!’, ‘맛있어라!’는 반어법으로 해석되거나 매우 어색한 표현으로 들린다. 이는 ‘-어라’가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거나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저성의 의미에 더해 ‘-어라’는 정도성 및 평가성의 의미도 지닌다. 이는 ‘-구나’와 달리 ‘-어라’가 결합한 문장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이다. 아래 예들을 보면 ‘-어라’는 정도성 의미를 가진 술어와만 어울린다.

(6) 가. *철수가 살도 안 찌고 키가 안 커라.

나. *철수가 벌써 집에 갔어라.

(7) 가. 아고~ 작아라~ 노루삼이 이리도 작았는지...

나. A (아내가 탄 모자를 보며) 어휴, 많기도 해라. 어디서 났어?

B 오늘 산청 갔다 오다 지인이 따라라고 해서 따왔지.

다. 아 예뻐라.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아요.

3) 박재연(2014)에서는 ‘-구나’가 ‘정보의 내면화 과정’ 그 자체를 표현하면서도 화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표현하므로 ‘새로 앎’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문보경(2013)에서도 한국어 감탄문의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는 명제가 화자의 기대(expectation)를 넘어섬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처럼 ‘-구나’가 ‘새로 앎’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장경희(1985)에서부터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고에서도 ‘-구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만약 화자가 명제 내용을 예측하고 있던 맥락에서 ‘역시 예상하던 대로 철수는 벌써 집에 갔구나’라고 발화해도, ‘철수가 집에 간 사실’은 발화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것이므로, ‘-구나’가 가지는 ‘새로 인식/인지함’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 한편 ‘-구나’는 의외성 외에 증거성의 측면에서도 논의되어 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정인아(2010)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6)에서 보듯 ‘-어라’는 동사와 결합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과거 시제도 결합할 수 없다. ‘-어라’는 (7)처럼 ‘작다’, ‘많다’, ‘예쁘다’ 같은 형용사와 주로 결합한다.⁴⁾ (7)의 형용사들은 관련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따라 대상의 순서(척도)가 매겨지는 정도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도 부사 ‘몹시, 아주, 너무’ 등에 의한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에 의한 비교도 가능하다.

이처럼 ‘-어라’는 정도성 해석이 가능한 술어와 공기한다. 이에 아래 (8)에서 보듯, 정도성의 영역이 설정될 수 있다면 동사도 ‘-어라’와 결합할 수 있다.

(8) 가. 아이구, 졸려라~

나. 아이구, 잘 보여라. (조용준 2017: 126)

(8가)에서는 화자가 졸린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8나)에서는 ‘잘’과 같은 부사가 결합하여 동사가 정도성 해석을 가지게 된다.

(6)~(8)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라’는 정도성을 가지는 상황이나 사건에만 결합하여 화자의 놀라움을 표현한다. 정도성을 가진 술어들을 정도성(*d*)을 논항으로 취하는 술어라고 보고, 감탄문이 취하는 명제의 의미식을 나타내면 아래 (10)과 같다.⁵⁾

(9) 가. 아이고, (꽃이) 예뻐라!

나. [꽃이 예쁘다] = $\exists d [예쁘다(꽃, d)]$

(10) [x가 a] = $\exists d [a(x, d)]$

이처럼 감탄이 정도성(degree)을 의미 요소로 가지고 있다는 관찰은 다양한 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Bolinger 1972, Michaelis and Lambrecht 1996, Castroviejo 2006, Rett 2011 등). 감탄의 의미 특징을 정도성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감탄이 표현하는 ‘놀라움’은 어떤 상황의 정도성이 화자가 예상한 정도의 등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곧 ‘현저성’과 같다.

이러한 의미 해석 과정에는 평가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아래 (11)의 예를 통해 감탄 표현에서 평가성이 해석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1) 가. 맥락: ‘메리’는 고양이인데 몸무게가 4kg이다. 이는 ‘메리’와 같은 나이의 고양이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몸무게에 속한다.

#(메리를 보며) 아이구, 똥똥해라.

나. 맥락: ‘메리’는 고양이인데 몸무게가 9kg이다. 이는 ‘메리’와 같은 나이의 고양이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몸무게보다 5kg 더 나가는 것이다.

(메리를 보며) 아이구, 똥똥해라.

4) 형용사와 ‘주로’ 결합한다고 한 이유는 심리를 표현하는 동사와 결합하는 ‘-어라’ 예문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고, {졸려라, 화나라}’와 같은 예에서 ‘-어라’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 자동사가 결합한 경우에도 정도성 형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졸리다, 화나다’가 가진 속성이 환기하는 차원(dimension)에서 척도가 형성되고 정도성이 평가된다는 점에서 정도성 형용사들과 동질적이다.

5) 정도성 의미론(degree semantics)에서는 ‘철수 키가 크다’와 같은 문장을 ‘철수 키가 180cm이다’와 같은 측정 구문(measure phrase constructions, MP)과 비교하여 긍정 구문(positive constructions)이라고 부르는데 긍정 구문이 나타내는 정도성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도성 운용소(null morpheme) “POS”를 설정하기도 한다(Bartsch and Vennemann 1972, Cresswell 1976, Kennedy 1999). 일반적으로 POS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OS] = $\lambda G_{\langle e, \langle d, t \rangle \rangle} \lambda x \exists d [G(x, d) \wedge d > s]$ (s는 맥락에서 파악되는 기준) (Rett 2015: 2)

위의 의미식에 따르면 ‘d>s’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정도성이 맥락에서 주어진 기준 s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정도성으로 평가됨을 표시한 것이다. Bartsch and Vennemann(1972)에서는 긍정 구문의 필수 의미 요소로 평가성(evaluativity)을 가정했다. 이를 받아들이면 위 본문에 제시한 (9다), (10)에도 ‘d>s’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은 아래 (12)에서 제시한다.

(11가)의 맥락처럼 어떤 속성(메리가 가진 뚱뚱한 속성)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라’ 감탄문을 발화하는 것이 어색한데 (11나)의 맥락처럼 화자가 예상한 정도성을 초과할 때에는 감탄문 사용이 적절하다. 이렇듯 감탄은 정도성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발생하는데, 화자의 정도성 판단을 평가성(evaluativity)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때 정도성 평가 기준은 맥락에서 발생하는 비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일반 상식이 결정한다. 가령 (9나)의 맥락에서는 ‘메리’와 비교되는 대상이 ‘일반적인 고양이’들로 상정된다. 이로 인해 정도성의 평가 기준은 일반적인 고양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표준 몸무게가 된다. 그런데 맥락에 따라 비교 대상의 부류(comparison class)가 ‘일반적인 고양이’가 아니라 ‘새끼 고양이’나 ‘소형 고양이’, 혹은 ‘쥐’가 된다면, 화자에게 ‘메리’는 ‘뚱뚱하다’고 평가받아 놀라움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은 맥락(context) 및 화자의 배경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감탄의 의미 특성은 ‘놀라움(현저성)’과 ‘정도성 평가’로 정리된다. 정도성에 대한 평가가 감탄의 핵심적 의미 성분이라면 한국어에서 감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종결어미에는 ‘-어라’가 있다. ‘-구나’는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의외성’을 핵심 의미 성분으로 가지고, 정도성 의미를 필수적인 의미 성분으로 가지지 않는다. 이에 ‘-구나’를 전형적인 감탄 종결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 살펴본 감탄이 성립하기 위한 의미 조건을 형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2) EXC(p) is defined iff $[[\text{EVAL } p]] = \lambda d.[a(x, d) \wedge d > s]$

참고. 위에서 EXC(p)는 화자의 명제 p에 대한 주관적 감정 및 평가(감탄)를 표현.

d는 정도성(degree) 운용소, a는 정도성 술어, x는 술어가 취하는 개체 논항

s는 문맥에서 주어진 평가 기준(contextual standard)을 뜻함.

2.2. 감탄의 적정성 조건

2.1절에서는 감탄이 지닌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화행 이론을 바탕으로 감탄법이 담화상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적정성 조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Searle(1969)에서는 개별 화행들의 특성을 구성적 규칙(constitutive rules)을 통해 구체화했다. 화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인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s)으로 내용 조건(content condition), 준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s), 성실 조건(sincerity condition),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이 있다. 이에 따라 감탄법(혹은 감탄 화행)의 적정조건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⁶⁾

6) 화행과 관련된 기존 국어학 연구에서 감탄 화행은 주로 정표화행(expressive)으로 다루어지거나 정표화행의 하위 화행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혜용(2009)에서는 Searle(1969)에서 제시된 정표화행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관점(화자와 청자를 모두 고려)에서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청자가 이에 대하여 감정이입 되기를 기대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표화행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대화 내에서의 위치(시작-반응), 의사소통 목적(소공감유발의도), 사태에 대한 인식(긍정적·부정적 감정)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찬사, 축하, 기원, 감사, 호감표현, 환대, 염려, 사과, 환호, 경탄, 소원, 한탄, 분통, 격정, 조롱, 우쭐대기, 약담, 원망, 질타, 질투’의 세부 화행을 제시하였다. 정종수·신아영(2013)에서도 정표화행을 인간의 정서를 기반으로 연구하여 심리학적인 인간의 정서 분류를 바탕으로 정표화행의 하위 분류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표화행의 하위 부류로 기쁨,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화행으로 제시하였고 칭찬화행이 포함된 감탄화행은 기쁨화행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감탄화행은 ‘기쁨’의 정서만을 나타내는데 ‘아, 오’와 같은 감정 감탄사가 감탄을 나타내는 직접 화행의 예이고, ‘정말 감탄했다’, ‘어쩔 내가 낳았지만, 저렇게 잘생겼니?’와 같은 평서문, 의문문 형식이 감탄의 간접 화행 예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감탄 화행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이라는 것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룬 정표화행의 범위를 포괄하지 않는다. 더불어 본고에서 다루는 ‘감탄’이란, 감탄 종결어미 ‘-어라’가 형성하는 감탄문, 감탄 평서문, 감탄 의문문이 표현하는 ‘감탄’이 무슨 의미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 가. 내용 조건: 감탄의 (명제) 내용은 정도성(degree)을 포함하는 명제로 구성된다.

나. 준비 조건: 화자(S)는 어떤 개체의 정도성을 판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성실 조건: 화자(S)는 명제(p)를 믿는다.

화자(S)는 명제가 지닌 현재성 및 새로움을 인식한다.

라. 본질 조건: 화자(S) 감탄 발화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된다.

(13가)의 내용 조건은 감탄 발화의 명제와 관련된 조건이다. 감탄이 적용되는 명제들은 2.1절에서 논의한 대로 정도성을 지닌 술어를 포함한다. 위의 적정성 조건에 따르면 아래 (14)의 예도 감탄의 간접 화행을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4) 가.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린 것을 보고) 눈이 정말 많이 내렸구나!

나.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이 키가 큰 것을 보고) 키가 정말 크구나!

다음으로 (13나)의 준비 조건은 감탄 화행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화행의 수행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다.⁷⁾ 감탄 화행은 아래 (15)에서처럼 화자가 사건이나 상황의 정도성을 판단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발화될 수 없다.

(15) 가. (맥락: 철수는 영수가 과일을 사왔다고 들었다. 그러나 영수가 과일을 몇 개 사 왔는지는 모른다.)

#과일이 많기도 해라!

나. (맥락: 영화는 수지가 회사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수지가 일이 많은지는 모른다.)

#일이 힘들기도 해라!

세 번째, 감탄 화행의 성실 조건은 (13다)에 제시한 것처럼 화자가 명제를 믿고, 상황이 주목할 만하다고 느끼거나 새롭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16)은 화자가 명제를 사실로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색하다.

(16) 가. #생선이 크기도 해라! 그렇지만 이 정도면 생선이 큰 건 아니다.

나. #(작은 강아지를 보고) 아고, 귀여워라~ 그런데 저 강아지가 귀엽지는 않아.

(16가), (16나)에서처럼 감탄이 실현된 이후 두 번째 문장에서 감탄의 명제 내용을 부정하게 되면 선행 문장과 모순이 된다.⁸⁾ 물론 화자는 아래 (17)에서처럼 명제를 믿지 않거나 기대했던 바와 같다고 생각할 때에도 감탄문을 발화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진실된 감탄 화행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7) 가. (맥락: 영화는 친구네 집들이에 초대받았다. 친구 집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이 예쁘기도 해라~

나. (맥락: 영수와 진수는 회사 동료 관계이다. 영수는 진수가 진급할 것을 알고 있었다. 영수는 진수의 진급 소식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단해라!

7) 예를 들어 단언(assertion)의 경우 준비 조건으로 Searle(1969), Sadock(2006)에서는 ‘화자가 명제(p)의 참에 대한 증거(evidence)가 있어야 하고 ‘화자와 청자에게 있어서 청자가 명제p를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감사(thanking) 화행의 경우 준비 조건은 ‘청자에 의해 행해진 과거 행위(A)가 화자(S)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고 이를 ‘화자(S)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8) 감탄문의 조건으로 문보경(2013: 179-180), Zanuttini and Portner(2003: 28)에서 사실성(factivity)을 지적한 바 있는데 사실성 조건은 위의 적정 조건 중 성실 조건과 통한다.

(17가), (17나)는 화자가 실제로 놀라거나 명제를 참으로 믿지 않았기에 성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진실된 감탄 화행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칭찬이나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화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질 조건은 화행이 관습적으로 어떻게 간주되고 있는지를 제시한 조건이다. 감탄 화행은 상황이 현저성을 가져 새롭다고 판단한 화자의 감정 혹은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감정 표현 구문의 의미 분석

3.1. 감탄 평서문

3.1.1. ‘얼마나+-은지’ 구문의 구성 성분

감탄 화행은 2장에서 살펴본 감탄형 종결어미 ‘-어라’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고 아래 (18)에서처럼 ‘얼마나’와 ‘-은지’를 포함한 평서문에 의해 실현될 수도 있다.⁹⁾

- (18) 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나. 출근할 때 지하철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은지’를 포함한 구문은 ‘얼마나’의 의미와 ‘모르다’의 해석 양상에 따라 중의성을 가진다. ‘얼마나’는 아래 (19), (20)에서 보듯이 정도성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의문 부사로 해석될 때도 있고 ‘얼마나’의 피수식어가 나타내는 정도성의 극단값을 나타내는 정도 부사로 해석될 때도 있다.

- (19) 가. 중고차를 사려면 돈이 얼마나(=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나. 너희 가게는 한 달 매출이 얼마나(=어느 정도나) 되니?
(20) 가. 내가 이거 찾느라 얼마나(=아주) 고생했다고. 자 카메라 앞에 바짝 붙어.
나. 소고기 잘게 볶아서 싸주시던 김밥 얼마나(=아주) 맛있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은지’를 포함한 구문에서 ‘얼마나’가 의문 부사로 해석되면 감탄이 해석되지 않고 ‘얼마나’가 정도 부사로 해석되면 감탄의 의미가 나타난다.

- (21)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모른다.
가. 나는 이번 여름의 더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단언]
나. 이번 여름은 너무 덥구나! [감탄]

(21)에 쓰인 ‘얼마나’가 의문 부사로 해석될 때에는 ‘모르다’의 주어가 화자 자신으로 해석되어 (21가)처럼 화자가 모르는 정보에 대한 단언(assertion)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얼마나’를 ‘몹시, 아주, 정말’과 같이 어떤 상태나 사건의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 부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21나)처럼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탄(exclamative)이 해석된다.

(21)에 나타난 종결어미 ‘-다’는 관습적으로 단언 화행을 나타내므로 (21가)는 문장 유형의 형식과 화행이 일치하는 경우에 속하고 (21나)는 문장 유형의 형식과 화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그렇다면 (21

9) ‘얼마나+-은지/는지’는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교재에서 교수 항목으로 제시될 만큼 화자의 감탄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문형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진희 2021: 12).

나)에서 해석되는 감탄의 의미는 간접 화행으로 분석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문장 유형의 형식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간접 화행으로 분류되는데 간접 화행은 아래 (22)처럼 직접 화행으로 해석될 때의 억양 실현 양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22) 소금 좀 전해 {줄래요?, 줄 수 있어요?}

1차 화행(직접): 질문

2차 화행(간접): 명령(요청)

(22)는 질문으로 사용될 때나 명령(요청)으로 사용될 때나 억양 실현 양상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21)에 쓰인 ‘얼마나-은지’ 구문은 감탄으로 해석될 때와 단언을 나타내는 평서문으로 해석될 때의 억양 실현 양상(intonational pattern)이 현저하게 다르다. 감탄으로 해석될 때에는 ‘얼마나’에 강한 음운론적 흔들림이 없히고 종결어미 ‘-다’의 억양도 평서문과 달리 상승 억양(H%)이 실린다.¹⁰⁾ 따라서 (21)의 ‘얼마나-은지 모르다’ 구문이 감탄으로 해석되는 것은 일반 평서문의 발화수반력과 독립된 발화수반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얼마나+-은지’ 구문이 감탄으로 해석될 때에는 아래 (23), (24)에서 보듯이 주어 및 모문 술어에 제약이 있다.

(23) 가. {나는, 철수는} 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단언]

나. {너는, 사람들은} 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감탄]

(24) {나는, 철수는, 너는} 그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물어봤어. [단언]

(23)은 주어의 인칭에 따라 ‘얼마나-은지’ 구문의 화행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23가)처럼 1인칭 주어 나 3인칭 단수 주어가 문장에 명시적으로 실현되면 [단언]으로만 해석되나 (23나)처럼 2인칭 주어가 실현되거나 3인칭 복수 주어가 오면 [감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감탄]으로 해석되는 경우 보통 주어는 생략되어 실현되지 않는다. 한편 (24)처럼 모문 술어가 ‘모르다’가 아닌 ‘물어보다’와 같은 술어로 교체되면 주어 인칭에 상관없이 모두 [단언]으로만 해석된다.

정리하면 ‘얼마나-은지’ 구문이 감탄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2인칭 혹은 3인칭 복수 주어와 결합하고, 술어는 ‘모르다’와 같은 인지 동사가 결합해야 한다.¹¹⁾ 이때 ‘얼마나’는 정도 부사로 해석되며 전체 문장의 억양은 평서문의 억양 실현 양상과 다르다.

3.1.2. ‘얼마나+-은지’ 구문의 의미 해석

‘얼마나+-은지’ 구문이 감탄으로 해석될 때에는 정도성(degree)과 평가성(evaluativity)이 해석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얼마나+-은지’ 구문을 구성하는 어휘 요소 중 무엇에 의해 도출되는 것인지 논의한다.

먼저 ‘얼마나+-은지’ 구문이 나타내는 정도성(degree) 평가는 정도 부사(degree adverb)로 해석되는 ‘얼마나’에 의해 도출된다. ‘얼마나’는 피수식어로 정도성의 높낮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술어들을 요구하여 아래 (25)처럼 정도성을 논항으로 취하는 정도성 형용사(gradable adjectives)나 (26)의 정도의 높낮이를 나타

10) ‘얼마나-은지’ 구문이 일반 평서문으로 실현될 때와 감탄 평서문으로 실현될 때의 음성학적 차이는 실험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11) ‘얼마나-은지’ 구문이 감탄으로 해석될 때에는 모문 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힘든지!’와 같은 발화는 모문 술어 없이 감탄을 나타낸다.

낼 수 있는 동사구 앞에만 결합한다.¹²⁾

(25) 가. 논문이 얼마나 긴지 몰라!

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26) 가. 김치에 얼마나 양념이 잘 뻐던지 몰라!

나. 머느리 잘 봤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

(25가), (25나)에 쓰인 ‘길다’, ‘반갑다’는 정도성을 가지는 형용사로 해석되어 그들의 논항 x와 술어가 나타내는 속성의 정도성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령 (25가)에서 ‘길다’는 논항인 논문(x)의 길이가 ‘길다’가 형성하는 정도성(degree)의 단계 내 특정 값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¹³⁾ (26가)에 쓰인 ‘배다’는 동사이지만 선행하는 상태 부사 ‘잘’에 의해 정도성이 해석될 수 있는 척도(scale)가 형성된다. (26나)의 ‘칭찬을 하다’는 ‘잘’과 같은 부사가 생략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즉 ‘얼마나’ 뒤에 오는 동사구는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없어도 맥락에 따라 ‘많이, 잘’과 같은 부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얼마나’가 정도성의 단계를 나타낼 수 있는 술어와 공기하는 것은 아래 예에서처럼 ‘얼마나’ 뒤에 정도성이 형성될 수 없는 동사나 ‘이다’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 가. *영희가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¹⁴⁾

나. *철수가 얼마나 선생님인지 몰라.

정도성을 나타내는 술어 앞에 결합하는 ‘얼마나’는 술어가 나타내는 정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범위의 끝에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때 정도성의 단계 및 범위의 극단값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맥락에서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취한다. 결국 ‘얼마나’가 결합함으로써 명제가 가진 정도성에 화자의 평가까지 더해지는 것인데 이를 아래 (28)의 예에 적용하여 살펴보자.

(28) 가. 철수가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몰라.

나. [(너는) [얼마나 [철수가 고기를 먹-] -는지] 몰라]

다. 철수가 고기를 먹는 정도(d) >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정도 기준(s)

라. $\exists d[\text{먹다}(\text{철수}, \text{고기}, d) \wedge d > s]$

마. 철수가 고기를 정말 많이 먹는다!

(28가)는 (28나)처럼 ‘얼마나’가 ‘철수가 고기를 먹-’이라는 명제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28가)는 ‘너는 철수가 고기를 먹는 정도가 일반 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모른다’로 해석되는데, 여기에는 (28다)와 같은 화자의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 결국 (28가)에는 상대방이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과 달리 화자의 인식에는 (28라)와 같은 정도성 평가가 존재함을 함축하며 이는 (28마)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리하여 (28가)는 (28마)의 명제를 단언함과 동시에 명제에 대한 화자의 정도성 평가를 바탕으로 감탄의

12) 정도성 술어(gradable predicates)들은 자신의 논항으로 정도성(degrees)을 취한다. 가령 ‘길다’ 같은 술어는 개체 논항을 한 개 요구하는 $\langle e, t \rangle$ 유형의 술어이지만 정도성을 지닌 형용사이므로 정도성을 논항으로 취하여 $\langle d, \langle e, t \rangle \rangle$ 의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Heim 1985, 2000, Kennedy and McNally 2005).

13) 이러한 정도성 술어의 의미를 측정함수(measure function)로 설명할 수 있다. ‘길다’의 의미를 측정함수를 바탕으로 논리적 의미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변항 d는 맥락에서 주어진 기준에 따라 해석된다.

[길다] = $\lambda d \lambda x. \text{length}(x) \geq d$ (Kennedy & McNally 2005 참고)

14) (27가)가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면, 그것은 특정한 맥락을 설정한 경우이다. 가령 어떤 영화에서 죽어도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해보자. 영화는 영화에서 수십번 죽어도 계속 살아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는 행위’는 여러 번 쌓일 수 있는 ‘양’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정도성이 해석되므로 (27가)가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다.

의미를 가지게 된다.¹⁵⁾

다만 ‘얼마나+-은지’ 구문은 ‘-어라’가 실현하는 감탄 화행과 달리 발화 현장에서 직접 새로움을 발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아래 (29), (30)에서 보듯 ‘-어라’ 감탄문은 과거 시제 어미가 결합할 수 없는 반면에 ‘얼마나+-은지’ 평서문에는 과거 시제 어미가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다.

(29) *사람이 많았어라!

(30) 가. 파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나. 그다음 전철이 사당에서 출발하는 텅 빈 전철인 거 있죠. 덕분에 앉아 왔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30가)는 ‘파티에 사람이 정말 많이 온 사실’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고 (30나)는 ‘전철에서 앉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낸다. 이는 ‘얼마나+-은지’ 구문이 현재 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감탄 의문문

3.2.1. ‘의문사+그렇게’류 의문문의 구성 성분

한국어의 감탄 표현 구문에는 감탄 평서문 외에 감탄 의문문도 있다. 아래 (31)의 의문문은 의문사와 부사 ‘그렇게’가 결합하여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다.

(31) 가. 값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 (= (2나))

≡ 값이 너무 비싸다!

나. 왜 이렇게 맛있냐? (= (2다))

≡ 음식이 정말 맛있다!

(31)에 쓰인 의문문들은 감탄의 의미를 가지는데 의문사와 부사 ‘그렇게, 이렇게’가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한다. 아래 (32)처럼 의문사가 생략되거나 부사가 생략되면 (31가), (31나)가 가지고 있는 감탄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다.

(32) 가. 값이 뭐가 비싸냐?

나. 값이 그렇게 비싸냐?

다. 왜 맛있냐?

라. 이렇게 맛있냐?

(32가), (32나)는 각각 ‘그렇게’, ‘뭐가’가 생략된 경우인데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으로 해석되어 (31가) 나타내는 감탄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다.¹⁶⁾ (32다), (32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양상은 의문문이 감탄 화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의문사와 ‘이렇게, 그렇게’ 같은 부사가 일정한

15) Levinson(2000)에서는 이를 M-principle로 설명했다. M-원리는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달리, 화자가 발화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확대 해석을 하되, 그 표현이 그 상황에서 보통 선호되는 것이 아닌 유표적인 표현일 경우 무표적인 표현이 가리킬 수 있는 상황과는 다른 비정상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이성범 2012: 181 참고).

16) (32가)처럼 ‘그렇게’만 생략된 경우에는 설명 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값이 하나도 비싸지 않다’라는 부정 단언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뭐가 그렇게’를 포함한 의문문이 부정 단언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논의에서 깊이 다루지 않으나, ‘뭐가 그렇게’류 의문문의 의미 해석과 관련해서 따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감탄 의문문에 실현되는 의문사의 특징을 살펴보자. 감탄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는 화자가 요구하는 미지의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에 아래 (33)에서처럼 감탄 의문문에 대한 응답으로 의문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색한 대화가 된다.

(33) 가. A: (숙제를 귀찮아하는 아들에게) 뭐가 그렇게 귀찮은 게 많니?

B: #숙제가 귀찮아요.

나. A: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며) 아쉽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B: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찾기 힘들어요.

따라서 (33가A)나 (33나A)에 쓰인 ‘뭐’, ‘왜’는 설명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와 달리 화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나타내지 않으며, 화자의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더한다. 이에 ‘뭐’는 술어가 요구하는 논항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조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34) 가. 뭘 그렇게 바쁘냐.

나. 이게 뭘 그렇게 아파.

(34가), (34나)에 나타난 ‘바쁘냐’, ‘아파냐’는 형용사이므로 ‘뭐’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34가), (34나)처럼 ‘뭐’에 ‘-크’이 결합한 ‘뭘’의 형태가 ‘뭐가’와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이는 감탄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뭘’이 술어의 논항 자리에 오지 않고 부가어 위치에 분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의문사 뒤에 결합한 ‘그렇게, 이렇게’ 부사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는 화시적(deictic) 특징을 가지는 지시부사로 감탄 의문문에서도 화시성을 바탕으로 특정 상황을 가리킨다.

(35) 가. (눈 앞에 많이 차려진 음식을 보고) {뭘,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나. (음식을 급하게 먹는 친구를 보고) {뭘, 왜} 그렇게 급하게 먹어요?

다. (멀리서 빨리 뛰어가는 동료를 보고) {뭘, 왜} 저렇게 빨리 뛰어요?

(35가)에서 ‘이렇게’는 ‘음식을 많이 차린 상황’을 지시하는데 화자가 있는 장소에서 생긴 일이므로 화자와 가까운 위치를 나타내는 ‘이렇게’가 사용되었다. (35나)에서 지시하는 상황은 청자의 행동이므로 청자와 가까운 위치를 표현하는 ‘그렇게’가 쓰였고 (35다)에서 ‘빨리 뛰어가는 상황’은 화자, 청자에게서 모두 멀리 떨어진 위치를 나타내는 ‘저렇게’가 쓰인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가 화시성을 가진 지시 부사로 쓰인 것은 아래 예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6) 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가, 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맛있냐?

나. (삶이 어렵다고 느끼며) {뭐가, 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힘들어?

다. (시험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며) {뭐가, 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쉬워?

(36가)~(36다)에서 화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얻은 판단이나 감각,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에는 ‘그렇게’나 ‘저렇게’는 결합할 수 없고 ‘이렇게’만 결합할 수 있다.

감탄 의문문에 쓰인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는 (35), (36)에서 본 것처럼 어떤 상황 자체를 지시하는

동시에 상황이 지닌 정도성(degree)도 지시한다. 가령 (36가)~(36다)에서 ‘이렇게’는 ‘이 정도로’로 환언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놀랄/주목할 정도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정리하면 감탄 의문문에 결합한 부사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는 상황이 일어나는 방식이나 모습을 지시하는 한편 상황의 정도성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37)에서처럼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뒤에 행위 동사가 결합할 때에는 부사가 단순히 행위의 모양이나 방법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정도성도 동시에 나타낸다.

- (37) 가. 이 형은 {뭘, 왜} 그렇게 물어봐.
나. 손 서방, {뭘, 왜} 그렇게 쳐다 봐.
다. 아니 그니깐 남들이 어떻게 사나를 {뭘, 왜} 그렇게 궁금해해.

(37가)의 맥락이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가령 형이 동생을 도둑 취급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동생이 형의 질문 방식이 지나치게 예의없다고 생각하여 (37가)를 발화했다. 이때 ‘그렇게’는 형의 질문 방식을 지시하는 동시에 ‘예의 없는 방식이 지나친 정도’도 지시한다. 또 다른 맥락을 고려하여, (37가)의 맥락이 형이 동생에게 같은 질문을 20번 반복한 경우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그렇게’가 ‘형이 질문한 횟수의 지나친 정도’를 지시한다.

3.2.2. ‘의문사+그렇게’류 의문문의 의미 해석

화자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 맥락에서 주어진 일반 기준보다 높은 정도성을 가진다고 평가되면 감탄의 의미가 해석된다. 위에서 ‘의문사+그렇게’류 의문문에서도 정도성과 평가성의 의미가 해석된다.

3.1절에서 살핀 감탄 평서문에는 ‘얼마나’에 의해 정도성 의미를 가진 술어가 요구되었다면 ‘뭘/왜 그렇게’류 의문문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부사에 의해 정도성 의미를 가진 술어가 결합한다. 그리하여 ‘의문사+그렇게’류 의문문에서도 어떤 상황이 지닌 속성의 정도가 화자의 기준을 포함한 일반 기준을 초과했다는 의미가 해석된다.

- (38) 가. 음식을 {뭘,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나. 음식을 많이 차린 정도(d) > 일반적인 기준(s)
다. 음식을 정말 많이 차리셨군요!

(38가)에서 ‘이렇게’는 ‘많이 차린 정도’를 지시한다. 이때 화자는 (38나)에서처럼 화자가 발견한 상황의 정도성이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등급에 위치한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38가)는 (38다)와 같이 ‘음식을 정말 많이 차렸다’는 단언을 하는 동시에 상황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의문사+그렇게’류 의문문은 감탄 평서문과 달리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종결어미 ‘-어라’가 가지는 특성과 같은 점이다.

- (39) 가. (깜짝 놀라는 친구를 보며) {뭘, 왜} 그렇게 놀라냐?
나. (깜짝 놀라는 친구를 본 후에) {뭘, 왜} 그렇게 놀랐냐?
다. (내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친구에게) {뭘, 왜} 그렇게 보냐?
라. (내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던 친구에게) {뭘, 왜} 그렇게 봤냐?

(39가), (39다)는 현재 시제가 쓰여 화자가 발화 상황에서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표현한다. 그러나 (39나), (39라)는 과거 시제가 쓰여 화자가 발화 시점 이전에 경험한 사건에 대해 묻고 있다. 이처럼 과거 시제가 결합하면 사건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나타내지 않고, 과거 사건에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화자가 질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감탄 의문문은 감탄 평서문과 달리 놀라움이라는 의미 외에 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된다.

- (40) 가. (깜짝 놀라는 친구를 보며) {뭘, 왜} 그렇게 놀라나?
 ≡ 너는 정말 깜짝 놀란다. 그렇게 놀랄 필요 없다.
 나. {뭐가, 왜} 그렇게 급해. 도서관 늦는다구 누가 혼내?
 ≡ 너는 너무 지나치게 급하다. 급하게 하지 마라.

(40가)는 상황의 정도성이 일반 기준(화자 기준 포함)을 초과한다는 평가를 단언하면서 상황의 불필요성도 단언하고 있다. 아울러 ‘의문사+그렇게’류 감탄 의문문은 (40나)처럼 맥락에 따라서는 정도성 평가 단언에 더해 금지의 의미도 해석된다.

위에서 화자의 정도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단언 및 감탄은 ‘의문사+그렇게’류 감탄 의문문의 일차적 의미라면 불필요성이나 단언의 의미는 이차적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4.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7-53.
 김진희(2021), “부사 ‘얼마나’의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을 위한 표현 문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3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9.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노대규(1983), 국어의 감탄문 문법, 보성문화사.
 문보경(2013), “The Characterization of Exclamatives in Korean”,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159-189.
 박재연(2014), “한국어 종결어미 ‘-구나’의 의미론”,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219-245.
 박진호(2011),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서정수(1990), 국어 문법의 연구 I, 한국문화사.
 윤석민(2000), 현대국어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이성범(2012),
 이혜용(2009), 한국어 정표화행 연구: 정표화행의 유형 분류와 수행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중수·신아영(2013), “정표화행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9-287.

- 정인아(2010),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하(2019), “한국어 감탄문 설정의 비판적 고찰: 구어 반말체 종결 어미의 억양 분석을 통하여”,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57-83.
- 조용준(2017), “감탄 어미 ‘-어라’의 특성과 문장 유형”, *우리말글* 74, 우리말글학회, 115-145.
- Aikhenvald, A. Y. (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tsch, R. and Vennemann, T. (1972), The grammar of relative adjectives and comparison, *Linguistische Berichte*, 20: 19-32.
- Bolinger, D. (1972), *Degree Words*, Paris: Mouton.
- Castroviejo, E. (2006), *Wh-exclamatives in Catalan*, PhD Dissertation, Universitat de Barcelona.
- Crosswell, M. J. (1976), The semantics of degree, In B. Partee (ed.), *Montague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261-292.
- DeLancey, S. (2001),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3, 369-382.
- Heim, I. (1985), Notes on comparatives and related matters. M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eim, I. (2000), Degree operators and scope, In B. Jackson and T. Matthews (eds.), *Proceedings of SALT 10*, 40-64. Ithaca, NY: CLC Publications
- Kennedy, C. (1999), *Projecting the Adjectiv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Gradability and Comparison*, New York: Garland Press.
- Kennedy, C. and McNally, L. (2005), Scale structure, degree modification and the semantics of gradable predicates, *Language* 81, 345-381.
- Kim, Okgi(2024), On the existence of Korean degree *what*-exclamatives, *Linguistic Research* 41(1), 135-168.
- Levinson, S.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 MIT Press.
- Merin, A. and Nikolaeva, I. (2008), Exclamative as a universal speech act category: A case study in decision-theoretic semantics and typological implications. Ms, University of Konstanz and SOAS London University.
- Michaelis, L. A. (2001), Exclamative Constructions, In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and W. Raible, (eds.), *Language Universals and Language Typology: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Walter de Gruyter, 1038-1050.
- Michaelis, L. A. and Lambrecht, K. (1996), The exclamative sentence type in English, In Adele E. Goldberg (ed.), *Conceptual Structure, Discourse and Language*,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375-389.
- Rett, J. (2011), Exclamatives, Degrees and Speech Ac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34(5), 411-442.
- Rett, J. (2015), *The Semantics of Evaluativ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dock, J. M. and Zwicky, A. (1985), Speech Act Distinction in Syntax, In Shopen, T.,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5-196.
- Sadock, J. (2006), Speech Acts, In L. Horn, and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53-73.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anuttini, R. and Portner, P. (2003), Exclamative Clauses at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Language* 79, 39-81.